

서구, ‘범죄예방 안심마을’ 등 주민제안 35건 선정

제2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9억원 예산 공모 제안사업 심의

광주 서구가 내년 예산에 주민제안 사업 35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 서구는 지난 7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35건(예산 9억원)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접수된 80여건의 제안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 및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심의 및 전체 회의를 통해 △범죄예방 안심마을 조성 사업 △사각지대 골목 반사경 설치 △화정동 경관녹지 안전펜스 설치 △은행(암)나무 교체사업 △주민 힐링 제공을 위한 썸지공원 조성 △맨발로와 함께하는 꽃길 가드 조성사

업 등 최종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들은 향후 서구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며 결과는 서구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대상자별 맞춤형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신설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서구,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오늘 서구청 야외광장서

광주 서구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당당하게 즐겨락(樂)’을 주제로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로,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더해 매년 ‘10월10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이날 행사는 서구청 야외광장에서 임산부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오후 4시30분부터 △태교존 △당당존 △당근존 △부대행사 존으로 나눠 진행된다.

태교존에서는 버스킹, 마술, 색소폰 연주 등 재미와 힐링이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또 당당존에서는 예비아빠의 임부 체험, 가족포토존, 풍선아트, 태명 캘리그래피 등 임산부 및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당근존에서는 주민이 주도해 착한가격으로 영·유아용품을 재판매하는 ‘베이비 플리마켓’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대행사존에서는 임산부 대상 △산전·후 우울증검사 △혈압·혈당 기초건강체크·상담 △아토피 예방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 부스가 운영되며 사전신청자에 한해 피크닉존 간식도 제공된다.

손숙자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행사가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임산부가 배려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남구 ‘군분로 야시장 걷기 챌린지’ 내달 2일까지 걷기 및 방문 인증

광주 남구가 걷기 운동 확산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분로 토요 야시장 방문 인증 및 20만보 걷기 챌린지를 시행한다.

남구는 걷기 챌린지를 모바일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을 통해 오는 11월2일까지 진행한다

일상 속 걷기 운동 생활화를 위해 남구가 지난 202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워크온을 이용하는 관내 주민은 현재 4109명에 달한다.

챌린지 기간 군분로에서는 매주 토요 일마다 야시장이 열리는데, 이곳에서는 먹거리를 비롯해 전시·체험 행사와 다채로운 무대 공연이 펼쳐진다.

챌린지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달 2일까지 20만보 걷기 달성과 함께 군분로 토요 야시장을 방문한 인증 사진을 워크온 내부 커뮤니티에 올리면 된다. 챌린지 기간 하루 최대 걸음 수는 1만보만 인정한다.

한편 남구는 미션을 모두 수행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이벤트 당첨자 200명을 선정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챌린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건강증진과(062-607-43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기 기자

‘인권 한 컷 우리들의 장기자랑’ 서구, 12일 ‘인권문화제’ 개최

광주 서구는 오는 12일 농성동 하정웅 미술관에서 ‘함께서구 인권문화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번 인권문화제는 ‘인권 한 컷 우리들의 장기자랑’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인권 영상 시청, 인권 플래시몹, 장기자랑, 인권 OX 퀴즈, 인권 우수작품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장애인, 시니어, 외국인 유학생,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하고 참여한다. 인권이라는 의미 있는 주제를 장기자랑이라는 흥미로운 형식으로 연결해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인권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인권 실천 컷가든 만들기 △인권 우산 만들기 △인생네트 △페이스페인팅 △인권 홍보 부스존 등 다양한 인권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많은 분이 참여해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광주 동구 총장동 주민자치회가 최근 총장로 4가 일원에서 ‘주민총회’와 ‘시내로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동구 총장동, 2024년 주민총회·시내로 마을축제 성료

역사사진전·의제발표 등 주민자치 활동 공유

광주 동구 총장동 주민자치회가 최근 총장로 4가 일원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공유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총회&시내로 마을축제’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장동의 과거와 현재를 가늠할 수 있는 역사 사진전을 시작으로 총장22 소속장 s밴드, 삼성경로당, 빅토리아 5인조 등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우수 주민 표창, 총장동 활동 영상 시청, 내년 의제 발표, 중앙초등학교 음악줄넘기 공연, 경매행사(총장로의 귀금속·예술의 거리 그림) 등도 진행됐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총장동 마을비전인 ‘빛과 행복을 더하다! 시내로, 시내로, 시내로!’를 외치는 순간이었다.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는 마을축제 초대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고, 팝핀한 경품 행사도 진행했다.

주민총회에서 확정된 마을 의제는 △주

민자치에 협치를 더하다(다양한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마을 역사에 미래를 더하다(마을 역사 탐방·자원 연구) △총장골목에 향기를 더하다(총장골목환경정화활동) △마을복지에 희망을 더하다(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관계 맺기) 등이다.

김병철 총장동장은 “총장동 주민들의 사랑과 참여로 주민총회 및 마을 축제가 잘 마무리 됐다”면서 “주민이 직접 뽑은 내년도 마을 의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광산구,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 당선

국비 5억원 등 총 10억원 투입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

광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은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 교통 모범도시를 육성하고 성공 사례를 통해 타 지자체로 전파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28개 지자체가 응모했다. 서류·발표 심사를 통해 광주 광산구, 고창군, 구미시, 영주시 총 4곳이 선정됐다.

광산구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 광주시가 ‘영산강변 자전거마을 시범지구 구축사업’

을 추진 중인 첨단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사업은 자전거 기반 구축,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두 축으로 진행된다.

우선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중앙로, 임방울대로 구간의 자전거도로, 건널목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교차로 구간에는 자전거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발생하는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1·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통합 주차장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안전학교를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내용을 확대해 첨단지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자전거 모범도시 자문단(컨설팅단)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2025년 실시계획을 추진,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는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쁘다”며 “자전거 타기 참 좋은 광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원 정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서비스 △하천변 단절된 자전거 도로 연결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확대 △자전거 보관대 개선 및 확충 △자전거 공기압 충전기 등 기반 시설 개선 △거점 터미널 및 찾아가는 안전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김상철 기자

북구 ‘맨발 걷기 데이’ 연다 내일 시민의 숲 맨발 산책로서

광주 북구가 가을을 맞아 11일 월출동 광주 시민의 숲에서 ‘북구민 다함께 맨발 걷기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구와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와 협력해 걷기 운동에 대한 흥미 유도와 함께 지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과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광주 시민의 숲 맨발 산책로 1.2km 구간을 왕복으로 걷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행사 웹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 현장 참가 신청접수도 이뤄질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최근 맨발 걷기 열풍과 늘어나는 주민 수요에 대응하고자 북구는 맨발 걷기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운영함과 동시에 인프라 확충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3년부터 이달까지 총 12곳의 맨발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지난 6월에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와 협약을 맺고 맨발 산책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와 올바른 걷기 문화 확산에 상호 협력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